

신임 중재위원 10명 위촉

문화관광부 장관은 신설된 서울 제6중재부 위원과 9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후임 중재위원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05년 9월 2일부터 2008년 9월 1일까지 3년이며, 소속 중재부는 다음과 같다.

- | | |
|---------------------------------|---------------------------------|
| • 서울 제2중재부 : 고 승 우(한성대 교수) | • 서울 제6중재부 : 박 정 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 서울 제5중재부 : 조 인 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최 충 응(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 유 호 봉(변호사) | 김 동 호(전 중앙일보 공익사업이사보) |
| 임 연 택(전 KBS 취재주간) | 한 부 환(변호사) |
| 이 기 중(전 전자신문 상무이사) | 조 수 정(변호사) |

2005년도 상반기 내부 회계감사 실시

200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가 지난 8월 26일 실시됐다. 전세봉(서울 제4중재부), 박충선(대구중재부) 감사는 위원회의 실행예산 모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물품 및 자산이 적정하게 관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언론중재법 시행 초기인 만큼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통한 위원회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위원회, 국정감사 받아

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과 함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조준희 위원장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의원들은 포털 사이트 등 조정·중재 대상에서 제외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언론중재법 시행 후 달라진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의견도 잇따랐다.

사무처 체련대회 가져

지난 10월 14일, 사무처 직원들의 체련대회가 열렸다. 서울 사무처 직원들은 시립창동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이뤄진 배드민턴 시합과 남자 직원들의 박진감 넘치는 축구 경기를 펼쳤으며, 지역사무소에서는 등산 등의 자체 체련행사 시간을 가졌다.



10월 21일 경남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위원의 사회로 황용경(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경남중재부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위원장, 유럽 언론유관기관 시찰 마치고 귀국

조준희 위원장은 9박 10일간의 유럽 언론유관기관 시찰을 마치고, 지난 9일 귀국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 독일 바이에른 고등법원, 영국 PCC 등지를 방문하여 현지 언론피해구제 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와 위원회를 홍보했다.

직원 혁신 워크숍, 강원도에서 열려

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혁신 워크숍이 지난 11월 3, 4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다. 김지숙(주)태평양 뷰티교육센터) 강사의 친절 교육과 직원들의 자체 혁신 토론회가 이어졌다. 특히, 이 날 토론회에는 위원회의 비전과 업무 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위원회, 2005년 정기세미나 개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2박3일간 충남 부여문화관광호텔에서 ‘포털 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언론계 인사, 중재위원, 포털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털 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과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제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양삼승 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발제를 바탕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